

## 영광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한수원, 아시아 최대규모 233억 들여 2008년 완공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중재)은 11월 17일 흥농읍 성산리와 계마리 일대 1만8천여㎡ 부지에 최대 3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인 영광솔라파크 착공식을 가졌다.

영광솔라파크에는 총 233억원이 투입되고, 2008년 3월 완공된다.

영광솔라파크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천5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일본의 키오타 태양광발전소의 두 배에 이르며 단일설비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다.

영광솔라파크가 완공되면 연간 854t의 석유 대체효과와 2천 123t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은 타 지역에 비해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발전시설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며 “영광에 투자하면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6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 중부발전, 2006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상섭)은 11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2006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행사에서 발전회사 최초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여 품질경영체제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 중 품질혁신, 생산성향상, 고객만족경영 등에서 현저한 경영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올해는 한국중부발전 등 9개 공기업을 비롯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현대엘리베이터 등 모두 58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중부발전은 친환경경영과 해외 전력시장에의 적극 진출, ‘인

적자원육성 마스터플랜 2010’ 운영,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인 Blue JB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정보의 공유 및 신뢰성 확보 등 그 동안의 뛰어난 경영실적이 인정되어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한국중부발전은 앞으로도 품질경영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종합정보화시스템인 Blue JB 의 활용도를 높여 고품질·저원가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앞장서, 국내 최고의 발전회사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동서발전, 최우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용오)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사업에 참가, 지난 11월 27일 발전회사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정부가 직원 능력개발 등 인적자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선정, HRM(채용, 전환배치, 승진, 보상)과 HRD(인프라, 기획, 운영, 평가와 피드백)분야를 심사해 적격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적자원개발분야 최초 정부인증이다.

이번 선정으로 동서발전은 차별화된 인재양성 전략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 동서발전은 정부가 시행하는 대학과의 인적교류나 연구협력 등의 사업에 행정과 재정적 분야에서 우선적 지원을 받게 되며, 산업별로 구성되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회원 자격을 획득해 양질의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경영진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이고 과감한 투자로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며 “모든 직원이 우수한 인적자원이 되는 최고의 발전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

라고 말했다.

## 서부발전, 세계 최대 가로림 조력발전 개발

### 충남 가로림만에 480MW급 조력발전사업 양해각서 체결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중신)은 11월 16일 롯데호텔에서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및 롯데건설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가로림 조력 발전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한 가로림 조력 발전 사업은 서부발전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충남 가로림만에 480MW급 조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가 준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

김중신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내 최고의 기업들과 가로림 조력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술적,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도 적극 부응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해 2001년 한전으로부터 가로림 조력 입지관리 업무를 승계한 서부발전은 사업개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인 끝에 지난해 7월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협약(RPA)’을 체결하고 2012년까지 가로림만에 480MW급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됐다.

또 지난 8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조력발전 기준가격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서부발전은 지난달 공동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발전회사 최초로 참여사를 공모,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및 롯데건설을 공동개발 참여사로 선정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가로림만은 국내에서는 최적의 조력발전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발전소가 건설되면 약 2km에 달하는 방조제가 축조돼 발전편익 외에도 도로 교량편익 및 내수면 개발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한전기공,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

고객가치혁신부문 수상...지난해 CS리더십부문 이어

한전기공(대표 함윤상)이 ‘2006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고객가치혁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전기공은 지난 11월 14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수상식에서 지난해 CS리더십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고객가치혁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객가치혁신부문은 고객중시 경영철학을 실현해나가는 기업에게 수여되는 것으로서, CS위원회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난 9월 29일 한전기공 본사에서 실시한 현장심사에서 심사위원단은 한전기공의 고객가치혁신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직장 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전년에 비해 직원들의 의식변화가 두드러져 민간기업 못지않은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평한 바 있다.

실제 한전기공은 함윤상 사장 취임 이후 ‘최상의 고객가치 창출’을 경영목표로 고객만족활동과 고객가치창출을 위한 전사적 경영혁신에 회사의 사운을 걸고 매진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CS경영혁신을 위해 사내 CS경영혁신 조직을 보강하고 사업소에 CS경영혁신추진사무국을 조직, 각 팀별 고객담당직원을 선임했으며, 최고경영자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의 정책 심의 및 활동 지원 등 CS경영혁신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어 CS경영활동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내부경영실적평가에서 고객만족활동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 CS경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 CS경영혁신의 필요성을 알리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직원 CS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행동과 마인드를 바꿔가며 서

비스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한편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은 고객만족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력 배양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 세계 최초 3MW급 해양소수력 상업운전 개시

경남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내, 3,000kW급 해양소수력 발전기 상업운전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한국남동발전(주)(사장 박희갑)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한 해수방류수와 조수 간만차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해양소수력 발전기인 "삼천포 해양소수력 발전소"가 11월 23일 준공되어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삼천포 해양소수력 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주)와 한전전력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해양소수력 발전시스템으로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해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시금석이 되었으며 국내 유사 발전소인 영흥, 태안, 당진 등의 화력발전소에도 보급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관련산업 발전 및 에너지 자립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남부발전 영남화력, 협력사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삼갑) 영남화력발전소는 11월 22일 소내 강당에서 사업소 협력사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협력사의 신기술 소개 및 발전설비의 운영기술 교류를 통하여 상호 유대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는 (주)서흥금속 외 6개사가 참여하였으며, 협력사별로 신기술 제품, 운

영기술 및 정비기술의 소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협력사설비운영 및 현장정비 기술 등에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 두산중, 8,400억 달러 美 발전설비 시장 공략

세계 최대 발전전시회 PGI에 임직원 대거 참여

두산중공업(사장 李南斗)이 2030년까지 8,400억 달러 규모가 형성될 미국 발전설비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두산중공업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올랜드에서 열린 파워젠 인터내셔널(Power Gen International, PGI) 2006에 영업, 설계, 연구, 구매, 홍보 등 50여명의 임직원을 파견해 전시관 운영, 컨퍼런스 참가 등 시장파악 및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PGI는 GE, 지멘스, 알스툼 등 전세계 1,000여개의 유명 발전설비 업체가 참가해 사업영역과 기술 등을 홍보하는 세계 최대의 발전설비 전문 전시회로 미국 발전설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 144㎡ 규모의 대형 독립전시관을 설치해 원자력, 화력 등 발전설비 기술력을 홍보했으며, 총 1만5천여명의 참가자들에게 두산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배포해 회사 인지도를 높였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기술연구원 유준택 연구원이 터빈 블레이드 기술개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기술 컨퍼런스에도 참가해 내년도 발전시장의 흐름과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두산중공업은 최근 인수한 발전설비 전문 엔지니어링업체인 미쓰이바복의 경영자들과 함께 내년 미주 발전시장에서 양사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두산중공업 홍성은 부사장(발전BG장)은 "최근 추진한 미쓰이바복 인수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양사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또한 미주 및 유럽시

장을 본격 공략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은 두산중공업이 올해 들어 10여회에 걸쳐 해외 전시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두산인프라코어도 9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IMTS 2006 공작기계전시회, 11월 상하이에 열린 바우마 차이나 건설중장비 전시회에 참여해 신제품 및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발한 해외 전시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 한전KDN 배전자동화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한전KDN(주)(사장 이희택)은 11월30일 본사 4층 양지홀 대강당에서 한전, 업계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전자동화 전시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제품 전시회와 기술 세미나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국내 배전자동화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었다.

전시된 신제품 중에는 한전KDN이 1999년부터 국내 배전자동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고객 요구 분석 등을 바탕으로 개발한 배전자동화용 다기능단말장치, 축전지온라인감시시스템, 무선부하감시시스템, 배전IT 원격운영 집합장치 시연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열린 기술 세미나에서는 배전자동화용 다기능단말장치 개발내용 및 배전스테이션 원격감시시스템과 인도네시아 세마랑 지역배전자동화시스템 구축 사례 발표 등 영업배전분야 기술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송완석 배전자동화팀장은 "신제품 전시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성능이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신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배전자동화 분야에 선진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한전의 배전자동화시스템 신뢰도와 대 국민 전기공급서비스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으로 9회째를 맞는 한전KDN의 배전자동화 전시회는 배

전자동화시스템 분야 신기술을 국내에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련 기술 저변을 확대하고 국내 중소기업 육성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 포스코-포스코파워 LNG 복합발전 기술 교류회 실시

포스코 포항, 광양제철소 및 포스코파워(사장 이승우) LNG 복합화력 발전소간 정기 기술교류회가 지난 11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포스코파워 인천 발전소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교류회는 포스코와 발전전문회사인 포스코파워(주)와의 정기적인 정보교류와 설비 운영상 문제점 등의 토의를 통해 양사간의 관련업무 효율성제고 및 기술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가스터빈 고온부품 관리 방법 등 발전설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 졌으며, 한전기공을 초빙하여 가스터빈 고온부품 수리 기술에 대한 강연을 듣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본 교류회는 포스코 광양, 포항 및 포스코파워에서 교대로 주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점차 교류회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도록 각 전문 분야별 주제 선정 및 심도있는 토의를 실시함으로써 양사간의 실질적인 기술력 향상 및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는 별도로 향후 양사 정비작업 시 상호 방문을 통하여 전문 정비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였다.